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2부 6강 <금강경> 1장 "법회가 열리기까지(法會因由分)"의 해설 (1)

<금강경>의 본문으로 진입하기로 한다. 1장은 이 법회가 열리기까지의 사정(因由)을 적었다. 번역 세 개를 우선 선보인다. 첫 번째는 세조 때의 언해본을 읽기 쉽도록 약간 손본 것이고, 두 번째는 구마라습 역의 경문이며, 세 번째는 내가 외팔되이 해 본 것이다.

[언해] "이 같음을 내 듣자오나... 일시(一時)에 부처께서, 사위국(舍衛國)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시... 큰 비구(比丘) 중(衆) 천 2백 5십인과 함께 계시더니... 첫 번째는 세조 때의 언해본을 읽기 쉽도록 약간 손본 것이고, 두 번째는 구마라습 역의 경문이며, 세 번째는 내가 외팔되이 해 본 것이다.

[원문]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 乞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번역] "한때 붓다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의 정사에 계시실 때, 1250명의 많은 수행자와 함께 계시 때였다. 밥 때가 되어, 붓다께서는 옷을 걸치고, 발음을 들고,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 집집을 돌며 탁발을 하시니, 본래 있던 거처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옷과 그릇을 거둔 다음, 발을 씻고, 자리를 펴서 앉으셨다."

[역시(如是我聞)] 모든 경전은 "역시(如是我聞),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시작한다. 말씀을 듣고 적은 주인공은 아난(阿難, Ananda)으로 설정되어 있다. 후대에 성립된 경전들도 마찬가지이다. "기록력과 총명이 제일 뛰어났던 붓다의 사촌 동생 아난이 이 모든 말씀을 머리 속에 적어 암송하여 후세에 전했다"는 것이다.

조기 경전들이야 그럴 수 있었겠지만, 대승의 경전들은 명백히 후대에 지어진 것들이다. 이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설이 생겨났다. 가령 반야부(般若部)의 경전들은 이미 붓다 당시엔 설해졌던 것들인데, 이해력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나

가스, 즉 용공에 보관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용수가 그것을 세상에 선보였듯이, <금강삼매경>도 원효가 부를 때까지는 용공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상식은 이것을 영 엉터리 소리로 치부하려 한다. 그러나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진리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길은 늘 옛길이다. 서양의 탁월한 아마추어 철학자 듀란트는 "오직 오류만이 새롭다"고 일갈한 적이 있다. 우리는 예전의 현자들과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때려박고, 혹은 그것을 자랑으로 일부러 붙여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사위국(舍衛國)

"일시(一時)에 부처께서 사위국(舍衛國)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시... 번역하자면, "언젠가, 붓다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시 때..."가 되겠다. 어느 경전이나 그렇지만 설법을 하자면 무대부터 세

다의 고향인 코살라의 수도이다. 지금 नेपाल에 가까운 북부 인도의 사해트 마헤트가 그곳이라고 한다. 붓다는 한때 90만호로 번성했던 이 '놀라운 도시'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전법 40년 가운데 25년을 지냈다. 사위(舍衛)는 Srasvatti의 음 그대로 베낀 것이다. 'Pizza'를 '피자'라고 표기한 것과 같다. Srasvatti를 보다 실제 음에 가깝도록 표기했다면 네 음절 정도를 썼을 법한데, 발음의 편의와 경제성 때문에 안을 뭉

일본식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교용어를 한문에서 산스크리트어로? 그러나 그 기이한 발음은 일본인이 발음하고 소통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이거나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그야말로 자연적 선택에 가까운 것이다.

나는 외국어 음을 본토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럴 필요도 없고... 관건은 소통이지 재현이 아닌 것이다. 지금도 Pizza를 '피자'라고 핏대(?) 울려 발음하는 사람이 있으나, 표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중화되고, 발음이 익숙해지면 그때 그것은 자연스레 표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작문에 추진되고 있는 '불교 용어 표준화'에 대해 한번 더 말해두어야겠다. 원어가 Srasvatti이니 이제 그만 사위성을 버리고, '스라스와피'로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금강경>도 '바스라제카다 수뜨라'로 바꾸어야 하겠지... 결국 불교를 익히고 배움에, 한문을 그만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배우고 익히자는 것인데... 이는 2000년의 불교 전통을 그만 바닷물 속에 가라앉혀 버리자는 쪽이 아닌 가.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절간마다 산스크리트로 독송한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독송하는 것이야 시대가 달라졌고, 소통과 이해를 위하여 본격 시도하는 것이 한편 바람직하지만, 지금 와서 산스크리트 원 발음을 되살리고 그 원 문자에 표기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고타마 붓다 이전 설해진 대승의 이치

성자들이 밝혀놓은 길을 따라 걷는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의 고타마 싯다르타 이전에 수많은 붓다들이 세상에 다녀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소승이나 대승, 조기불교나 후기 선과 밀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도 모른다. 대승의 이치는 이미 붓다 이전에 설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가. 가령,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다가, "아, 이 양반이 불교의 근본 이치를 알고 있었네" 하는 느낌... 거기 선다면 아우렐리우스가 불교를 말하고, 불교가 아우렐리우스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불교 내부에서도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하면, "네가 곧 부처다"라거나, "네가 부처와 조사와 한 자리에서 그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 요컨대 '그것'이 중요하지, '누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것은 다만 '이름' 뿐이다. 이름은 가격을 표시해 놓은 레테이트 뿐이니...



워야 한다. 주인공은 당연히 붓다이다. 시간은 알 수 없다. 장소는 그분이 생애 후반기 오랜 세월을 머물렀던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이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여기서 무대는 역사적 붓다에서 따 왔지만, 대승이 더 발전하면, 가령 <화엄경>처럼, 지상의 밖, 저 먼 아득한 환상의 나라에다 설정하기도 한다.) 사위국(舍衛國), 혹은 사위성(舍衛城)은 붓

개 두 글자로 줄인 듯하다. 일본은 외국어를 자국어 음가로 표기할 때 이보다 훨씬 더 과감한 생략과 단순화로 유명하다. 'television'을 '테레비'로 줄인 것은 예외라고는 해도, 워드프로세서를 '외뿌로'라고 잘라먹는 것을 보고는 좀 심했다 싶기도 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 '쇼바'라는 문구를 심심찮게 보았을 것인데, 그것이 '충격 흡수 장치'를 뜻하는 'shock absorber'의

주장사파라...

구하 스님의 편지



조태호

경봉스님께서 편지를 주셨다. 호 어디보자. 밝은 별을 보고 어떤도를 깨달았나.

'도란 사악한 맘' '도'란 바로잡는 것. 깨달고 깨닫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근 경봉. 이번에도. 마음의 둘이면 파국이지.

법석(法錫)은 동남으로 분산됐는데.

현재(纒紲)가 나를 위해 차와 글 보내 왔네...

침습이 넘어도 건강해 하늘을 보니.

달빛을 걸으면 형생각 나네. 오로지 호법(護法)으로 침습을... 운수에겐 바둑과 물병이 최고지.

경봉이 그리움에 꼭차 있구나. 그래... 불가는 정은 있어도. 사랑은 없지. 사랑은 모두 부처의 사랑이지.

마음이 둘이면 파국이지.

법석(法錫)은 동남으로 분산됐는데.

현재(纒紲)가 나를 위해 차와 글 보내 왔네...

침습이 넘어도 건강해 하늘을 보니.

구하 스님(九河, 1892~1965): 법명은 천보(天輔), 자호는 취산(鷲山), 1911~1925년 통도사 주지, 1949년 총무원장을 지냄.

네터즌 교리문답

"참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늘 죄 짓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참회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런 반성법으로 참회를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참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늘반성맨)

답 1: 참회(懺悔)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참(懺)'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참는 것이고, 회(悔)는 부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을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참회가 이루어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로 참과 회로 분리해 파악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마음과, 과거의 옳지 못한 일들을 반성하고 부처님과 보살님 또는 스승과 윗분에게 지은 죄를 고백한 다음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참법)

답 2: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매달 보름날을 참회의 날로 정해 대중이 모여 지난 날 지은 죄를 참회했습니다. 이날을 포살일(布薩日)이라고 합니다. 안거가 끝난 마지막 날에는 안거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공개 참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을 자자일(自恣日)이라고 부릅니다.

참회는 크게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대별합니다. 이참은 지은 죄의 실상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 참회를 말하고, 사참은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동경을 하거나 참회의 진언을 외우는 등 행위와 동작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절해서 참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논서로 당나라 선도스님이 저술한 <왕생예찬(往生禮讚)>이 있습니다. <왕생예찬>에 의하면 상품(上品) 참회는 눈에서 피가 흐르고 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참회입니다. 중품(中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나오고 털구멍에서 뜨거운 진물이 내리는 참회입니다. 하품(下品)참회는 눈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 참회입니다.

하루에 3천배를 하고서는 눈에서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과연 참회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참회와 용서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참회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움을 느끼지요. 지난 세월의 과오를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를 날의 죄와 악을 짓지 말자는 각오와 수행이 더욱 절실합니다.(진정참회란?)

불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4 in specific cells.

상식퍼즐

1. 오계의 항목은 불살생 불살음 불살음 불살음 불살음 불살음 2.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3. 부처와 그의 제자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으로 파순이라고도 함 4. 여당과 정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5. 거문고나 가야금 따위의 줄을 고르는 기구, 안쪽 6.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7. 국·한문 서체의 하나로 일반 서적이거나 신문·잡지의 본문용 활자로 쓰임.

1.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수 없다'는 한자성이 8. 일곱이 타는 마차 9. 책의 저술·편찬을 지도·감독하는 일 10. 경남 통영시 한산도에 소재한 이순신 장군의 해군사령부가 있었던 곳 11. 가래가 나오지 않는 기침 12. 네 면이 정삼각형인 사면체 13.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나 풍기 14. 그때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 따위를 새로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냄.